

취 임 사

친애하는 조합원사 대표 여러분!

오늘 조합 2012년 정기총회에서 제6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성림유화 대표 김영중입니다.

조합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이처럼 무거운 중책을 맡겨 주셔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누란의 위기에 처한 우리업계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달라는 대표님들의 기대와 바램이 담겨 있기에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업계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내우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져만가는 경영여건으로 업계의 갈등과 불신의 벽은 높아만져 이제는 각 권역 대표들의 모임은 물론 조합을 통한 현안문제 해결은 탁상공론으로 밖에 치부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업계가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업계의 미온적인 정책 대응에 있었음을 먼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소각산업 불필요론”내지는 “소각산업의 에너지기업 불인정”

이라는 결론을 놓고 만들어가는 폐기물 정책기조에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소각산업의 재발전”이라는 원칙하에 지난 몇 년간 정부를 상대로 많은 제도개선 건의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범주에 우리를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있습디만, 이 또한 여의치 않은 것이 우리가 처한 바깥의 현실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사 대표님!

그동안 우리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혐오시설, 기피시설이라는 대접을 받아가며 업을 이끌어 왔습디까? 또 이를 탈피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디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폐자원에너지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이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서는 절대 않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앞으로 조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업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소통의 시대에 맞는 업계를 만들겠습니다.

작금의 시대 조류는 소통을 원칙으로 이루지고 있으며 또 그 중요성은 사회적 화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이에 공감하기에 조합원사들은 물론 비조합원사 및 유관업계를 망라하여 전체를 아우르며 단합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오해와 불신을 낳고 이로 인한 업계의 균열 내지는 폐기물산업의 동반몰락의 원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책기관과의 관계개선 및 활용에 적극 노력 할 것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업계는 폐기물정책의 오류로 인한 소각물량의 고갈, 그 오류 정책을 악용한 소각물량의 불법처리 이 두 가지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모든 과정은 이들 정책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됩니다. 저는 이 정책에 관계된 정부, 국회를 비롯한 여하한 기관들과 끊임없는 관계개선 및 활용을 통해 우리가 목표한 것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셋째, 조합원사 중심으로 조합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 또한 조합의 원년 회원이면서 조합 임원과 고문 등을 역임 하였으나 조합이 추구하는바와 역할 등에 대해서 일반 조합원들은 알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조합의 기능을 이해 못하셔서 오는 조합원들의 불만과 불신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장과 조합원들의 대화창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 질 수 있는 정례회의 자리를 만들도록 할 것이며,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권역별회의에 참석하여 조합의 사업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설명드리고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여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꾸려가는 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친애하는 조합원사 대표 여러분!

평생을 폐기물산업에 몸바쳐 온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처럼 기업 경영이 어려운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며 에너지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온 우리업계로서는 반드시 이 난관을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쪼록 조합원사 대표님들과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조합을 이끌어 오신 안경복 이사장님과 역대이사장님들의 치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임을 또한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립니다.

드릴말씀은 많으나 앞으로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자리를 통해 말씀 드릴 것임을 약속드리며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2012년 2월 28일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 김 영 중